

2018년 9월 19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

### 중국 국무원 “미국과 무역분쟁 종단을 위한 실무적인 대화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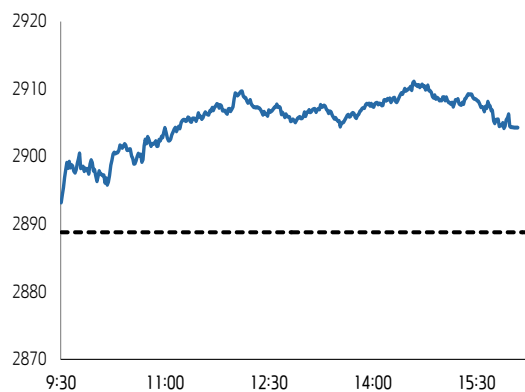
#### 미·중 무역분쟁

미 증시는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등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중국 국무원과 미국 상무장관 모두 비록 관세를 부과하지만 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표를 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이에 힘입어 산업재가 상승을 주도. 더불어 JP 모건이 마이크론(+4.02%)에 대해 공급 균형과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비중 확대 및 목표주가 84 달러를 제시하자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다우 +0.71%, 나스닥 +0.76%, S&P500 +0.54%, 러셀 2000 +0.44%)

미국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24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도 600 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품에 대해 24일부터 5~10%의 관세를 발효한다고 발표. 이 여파로 27~28 일 있을 무역분쟁 관련 협상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등 투자심리는 위축. 그러나 중국 국무원이 미국에 대해 관세 발효를 발표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 더불어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 종단을 위한 실무적인 대화를 원한다” 라고 언급.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 또한 미국의 관세 발효 또한 “건설적인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발표 한 것” 이라고 주장. 특히 “미국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했다고 언급. 금융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중 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 그러나 양국의 대화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이를 감안 27~28 일 무역분쟁 관련 협상이 화두가 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종류(%) | Close     | D-1   | 지수종류(%) | Close     | D-1   |
|---------|-----------|-------|---------|-----------|-------|
| KOSPI   | 2,308.98  | +0.26 | 홍콩항셱    | 27,084.66 | +0.56 |
| KOSDAQ  | 831.85    | +0.36 | 영국      | 7,300.23  | -0.03 |
| DOW     | 26,246.96 | +0.71 | 독일      | 12,157.67 | +0.51 |
| NASDAQ  | 7,956.11  | +0.76 | 프랑스     | 5,363.79  | +0.28 |
| S&P 500 | 2,904.31  | +0.54 | 스페인     | 9,447.50  | +0.46 |
| 상하이종합   | 2,699.95  | +1.82 | 그리스     | 686.68    | +0.58 |
| 일본      | 23,420.54 | +1.41 | 이탈리아    | 21,228.23 | +0.55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업종 강세

마이크론(+4.02%)은 JP모건이 하반기 D램 가격과 2019년 침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확대를 유지하자 상승 했다. JP모건은 공급업체가 합리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수요도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공급/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실적 발표(20일)를 앞두고 견고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인텔(+1.50%), 텍사스인스트루먼트(+1.17%), 브로드컴(+2.85%), 퀄컴(+2.02%) 등 반도체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0.84% 상승했다.

아마존(+1.73%)은 오픈하이머가 최근 하락은 과도하고 곧 회복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강세를 보였다. 알파벳(+0.63%), 넷플릭스(+4.94%) 등 'FANG' 기업들도 동반 상승 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방송업계의 최고 상인 에이미 상에서 아마존과 더불어 많은 자체 드라마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한편, 보잉(+2.14%), 캐터필라(+1.95%), 나이키(+2.40%), GM(+0.23%) 등은 미·중 간 무역 분쟁 관련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   | +1.36% | 대형 가치주 ETF     | +0.38% |
| 에너지섹터 ETF    | +1.71% | 중형 가치주 ETF     | +0.35% |
| 소매업체 ETF     | +0.37% | 소형 가치주 ETF     | +0.06% |
| 금융섹터 ETF     | +0.50% | 배당주 ETF        | +0.26% |
| 기술섹터 ETF     | +0.64% | 변동성 ETF        | -0.50% |
| 소셜 미디어업체 ETF | +1.42% | 대형 성장주 ETF     | +0.70% |
| 인터넷업체 ETF    | +1.03% | 중형 성장주 ETF     | +0.60% |
| 리스업체 ETF     | -0.59% | 소형 성장주 ETF     | +0.76% |
| 주택건설업체 ETF   | +0.37% | 신흥국 고배당 ETF    | +0.96% |
| 바이오섹터 ETF    | +1.12% | 신흥국 저변동성 ETF   | +0.80% |
| 헬스케어 ETF     | +0.58% | 하이일드 ETF       | 0.00%  |
| 곡물 ETF       | -0.06% | 물가연동채 ETF      | -0.21% |
| 반도체 ETF      | +0.76% | Long/short ETF | -0.37%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550.58   | +0.70% | +1.95% | +2.38% |
| 소재      | 372.89   | +0.05% | +0.64% | +1.12% |
| 산업재     | 668.00   | +0.89% | +2.33% | +3.76% |
| 경기소비재   | 928.58   | +1.27% | -0.01% | +3.14% |
| 필수소비재   | 559.93   | -0.44% | +0.57% | -0.71% |
| 헬스케어    | 1,081.03 | +0.53% | +1.56% | +2.35% |
| 금융      | 467.25   | +0.41% | -0.33% | -0.23% |
| IT      | 1,301.71 | +0.62% | -0.12% | +1.92% |
| 통신      | 158.75   | -0.04% | +1.42% | +0.54% |
| 유틸리티    | 273.64   | -0.21% | +0.23% | -0.21% |
| 부동산     | 206.01   | -0.59% | -0.41% | -1.46%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무역분쟁 관련 소식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42% MSCI 신흥지수도 0.96%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804 계약)에 힘입어 1.20pt 상승한 298.0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2.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①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 ②반도체 업종 강세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해외 주요 기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된다면 글로벌 무역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미국 상무 장관 또한 대화를 언급 하며 극단적인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 또한 우호적이다. JP 모건이 공급업체가 합리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수요도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공급/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힘입어 마이크론이 4% 넘게 급등 하는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미·중 관세 발효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골드만 삭스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10%의 관세로 S&P500 의 2019 년 영업이익이 15%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S&P 도 미·중 무역 관세로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를 감안 관세 발효 기간이 길어진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정부의 대화 의지에 따라 시장 변화가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소식에 주목해야 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지표 둔화 이어짐

미국 9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67)과 같은 67 로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해 9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주택 지표들의 둔화를 반영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여파가 판매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 상회

국제유가는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군용기를 오인해 격추시키자 중동 리스크가 확산된 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관련 대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유가가 80 달러를 넘어선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 조절 능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관련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자 엔화가 달러 대비 0.5% 가까이 약세를 보인데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이 또한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국가별 이슈에 따라 혼조 양상을 보였다. 호주달러, 남아공 란드화, 멕시코 페소화등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터키 리라, 인도 루피화 등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보합권에서 관망하는 양상이었다.

국채금리는 미국의 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특히 장기물의 상승세가 컸다. 단기물은 UBS 가 무역분쟁 격화로 12월 FOMC 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상승은 제한 되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이 이어진 점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와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로 하락 했다. 구리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했다. 여타 비철금속도 동반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1.19%, 철근도 1.33% 상승 했다.

| 주요 상품 | 증가       | D-1(%) | D-5(%) | 주요 통화         | 증가      | D-1(%) | D-5(%) |
|-------|----------|--------|--------|---------------|---------|--------|--------|
| WTI   | 69.85    | +1.36  | +0.87  | Dollar Index  | 94.625  | +0.14  | -0.66  |
| 브렌트유  | 79.03    | +1.26  | -0.04  | EUR/USD       | 1.167   | -0.11  | +0.55  |
| 금     | 1,202.90 | -0.24  | +0.06  | USD/JPY       | 112.33  | +0.43  | +0.63  |
| 은     | 14.185   | -0.27  | +0.23  | GBP/USD       | 1.3146  | -0.08  | +0.87  |
| 알루미늄  | 2,035.00 | +0.15  | -0.44  | USD/CHF       | 0.9645  | +0.20  | -0.80  |
| 전기동   | 6,086.00 | +2.37  | +3.87  | AUD/USD       | 0.7219  | +0.52  | +1.40  |
| 아연    | 2,349.00 | +1.25  | +1.64  | USD/CAD       | 1.2979  | -0.49  | -0.67  |
| 옥수수   | 343.25   | -1.36  | -6.41  | USD/BRL       | 4.1485  | +0.36  | -0.11  |
| 밀     | 510.50   | +0.84  | -1.59  | USD/CNH       | 6.8605  | -0.14  | -0.21  |
| 대두    | 814.00   | -1.15  | -2.13  | USD/KRW       | 1123.20 | -0.30  | -0.19  |
| 커피    | 95.85    | -1.49  | -4.58  | USD/KRW NDF1M | 1122.00 | -0.31  | -0.10  |

| 10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
| 미국      | 3.053 | +6.66   | +7.78   | 스페인     | 1.503 | +1.80   | +3.90   |
| 한국      | 2.335 | +1.00   | +6.50   | 포르투갈    | 1.849 | +2.30   | -3.80   |
| 일본      | 0.117 | -0.10   | +0.20   | 그리스     | 4.058 | +4.30   | -0.60   |
| 독일      | 0.480 | +2.20   | +5.00   | 이탈리아    | 2.787 | -5.60   | -15.30  |